

사진가사의  
따뜻한 것

### 무기 쇼핑?



잠 못 이루는 열대야에 부쩍 인기가 많아진 곳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 속에 느긋하게 잠을 볼 수 있는 대형 마트가 그 곳입니다.

잘 익은 수박 한통, 목마름을 채워줄 시원한 맥주, 고픈 배를 채울 수 있는 간식거리 등 카트에 물건을 잔뜩 싣고 유유히 마트를 누비는 사람들의 모습은 흔한 여름 풍경이 됐습니다.

지난주 시원한 매장이 아닌 땀벌 속에 잔디밭을 누비고 있는 카트를 보았습니다. 숨막히는 더위 속 근인의 손에 이끌려 어딘가로 움직이는 카트에는 간식거리가 아니라 군모와 총기 등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이 어색한 풍경은 지난주 육군 31사단에서 진행된 화랑훈련의 한 장면입니다. 생화학전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카트는 기동성 향상 임무를 부여받고 훈련장 곳곳을 누볐습니다.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전개된 화랑훈련에서 우리 자랑스런 젊은이들은 뜨거운 여름 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방의 임무를 위해 굼은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훈련장의 모습은 금강산 관광객 피크시건과 맞물려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또 뜨거운 겁니다.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세계 유일의 분단국입니다. 분단국의 젊은이들에게 군대는 꼭 거쳐야만 하는 성장통과 같은 곳입니다. 총성이 멈추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 언 제쯤 고요한 평화가 찾아올까요?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오늘의 유머

▲소방차와 소방관  
시골 농장에 불이 나자 주인이 재빨리 소방서에 신고했다.  
잠시 후 낡고 허름한 소방차가 도착해서는 불길로 휩싸인 농장 한가운데로 달려 들어가는 멈추는 것이었다.  
불길 속에서 뛰어내린 소방수는 미친 듯이 물을 뿌리기 시작해 혼자 진화를 끝냈다. 그 모습에 감동한 농장 주인은 소방수에게 감사의 뜻으로 돈을 기증했다.  
그러자 이를 취재하러왔던 기자들이 그 소방수에게 물었다.  
“정말 응감하시군요. 기증받은 돈은 어디에 사용하실 건가요?”  
그러자 소방수가 씩씩거리며 말했다.  
“우선 이 고물 소방차의 브레이크부터 고칠 겁니다.”

▲하지 않은 일  
한 아이 학교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오늘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선생님에게 벌을 받았어.”  
“엄마! 오늘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선생님이 벌을 받았어.”  
“어기를 들은 엄마가 화를 내면서 말했다.  
“뭐라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니? 내가 내일 학교에 찾아가 너희 선생과 얘기를 좀 해야겠구나. 그런데 네가 하지 않은 일이 뭐였는데?”  
그러자 아이가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다.  
“숙제.”

▲간절한 기도  
항해를 하다가 표류당한 두 사람이 구명보트에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망망한 바다뿐이자 한 사람이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다.  
“오! 하나님! 만약 저를 구해주신다면 저의 재산의 절반을 바쳐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풍랑만 더 심해졌다.  
“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신다면 제 재산의 3분의 2를 하나님께 바쳐겠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어도 구원의 손길이 닿지 않자 한 사람이 다시 절박한 목소리로 기도를 시작하였다.  
“하나님, 제발 저의 이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세요. 제 목숨을 구해주신다면 저의 재산...”  
그때 다른 한 사람이 소리쳤다.  
“이봐, 거러를 중단해! 저기 섬이 보여!”

▲어떤 질문  
꼬마와 여선생님이 수학문제를 냈다.  
“전직전에 삼새가 다섯 마리 앉아 있는데, 포수가 총을 쏘서 한 마리를 맞으면 몇 마리 남지?”  
“한 마리도 없어요. 다 도망가니까요.”  
“정답은 4마리란다. 하지만 네 생각도 일리가 있는걸.”  
이번엔 꼬마가 물었다.  
“선생님, 세 여자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한 명은 활아 먹고, 한 명은 깨물어 먹고, 다른 한 명은 빨아 먹고 있어요. 어떤 여자가 결혼한 여자예요?”  
얼굴이 빨개진 선생님이 대답했다.  
“아마 빨아먹는 여자 아닐까?”  
그러자 꼬마가 대답했다.  
“정답은 결혼한 건 여자예요. 하지만 선생님의 생각도 일리가 있네요.”

▲밤길에 생긴 일  
한 여학생이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집으로 가고 있었다. 밤길을 걸어가던 여학생은 뒤에 남학생이 뒤 따라오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부지런히 걸었다.  
그런데 빨리 걷는 만큼 남학생의 걷는 속도가 빨라졌고 이에 겁을 먹은 여학생이 마침 앞을 오는 한 아주머니에게 달려가 얼마인 척 말을 걸었다.  
“엄마, 오늘 많이 기다렸지?”  
그러자 뒤따라오던 남학생이 당황한 표정으로 아주머니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엄마, 애 누구야? 엄마 아는 애야?”

### 리빙 센스

#### 날씬한 목과 어깨를 위한 마사지

1. 한쪽 손을 같은 쪽 어깨 뒤로 넘겨 가운데 뼈를 문지른다.
2. 손을 들어 올려 반대쪽 어깨를 강하게 누른다. 피로가 개운하게 풀린다.
3. 손바닥으로 측면에서 목 뒷부분까지 열이 날 정도로 충분히 문지른다.
4. 엄지와 중지로 턱 바로 아래부분의 목을 꼬집으면서 살살 풀어준다.

#### S라인을 위한 허리 마사지

1. 양손가락으로 허리 옆을 꼬집어준다.
2. 허리 뒤편 양 측면 부위에 손바닥을 대고 열이 날 때까지 문질러 준다.

###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7월 22일(음 6월 20일 癸亥)

子	36년생 재물의 손실, 사기, 실물을 조심하라. 48년생 아내의 건강을 살펴라. 60년생 재물이 사방에 있으나 내 것이 아니다. 72년생 임진상하라. 공로가 무너질까 걱정이다. 84년생 주변의 이상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21, 32
丑	37년생 구설이 따르고 신체의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다. 49년생 각별히 건강에 유념해야 위험이 없으리라. 61년생 일거수 일투족을 조심해야. 73년생 고생은 있으나 좋은 날이 된다. 85년생 혼자서 노는 격이다. 이웃과 점을 나누라. 행운의 숫자: 18, 35
寅	38년생 뜻밖의 기회가 오니 적극적인 참여로 기회를 잡으라. 50년생 남의 말을 경청하면 자다가도 떡을 얻으리라. 62년생 자신 있게 추진하라. 74년생 초행길은 불려하니 살피서 행동하라. 행운의 숫자: 11, 41
卯	39년생 지인의 협조가 있다. 51년생 순풍에 항해하니 여정에 대비는 해야 하리라. 63년생 처가나 시가 편에 경사가 생길 수 있다. 75년생 새로운 인연은 있으나 큰 기대는 거두지 마라. 행운의 숫자: 20, 38
辰	40년생 다시 한번 도전의 기회가 보이나 놓치지 마라. 52년생 새로운 직업과 인연이 생기니 조심은 잊지 마라. 64년생 세 번 생각하고 행동하면 오욕은 없으리라. 76년생 순풍과 역풍이 오락가락한다. 행운의 숫자: 12, 30
巳	41년생 바빴던 일손을 놓고 가족을 살펴라. 53년생 정신이 혼미하니 심상의 안정을 취하라. 65년생 주변이 산만하고 어지러우니 수양하라. 77년생 의외로 재물이 생기고 승진하는 격이나 이상문제는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22, 34
午	42년생 학문의 발전이 있다. 54년생 또 다른 성공의 기쁨이 마련된다. 66년생 부부간의 언쟁을 현명하게 넘겨라. 불연이면 극한 상황도 예상 못한다. 78년생 금전 사기 대소비가 있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02, 31
未	43년생 어부지리는 있으나 작다. 55년생 절대 주변 사람과 신사나 동업은 신료로써 진행하라. 67년생 신용이 무너지면 절벽으로 추락한다. 79년생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생길 수 있다. 행운의 숫자: 23, 42
申	44년생 갈등이 따르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56년생 안중모색을 하나 쉽지 않다. 68년생 하는 일마다 불행한 인연이 따를 수가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80년생 뜻밖의 협조가 있으나 결과는 기대하지 마라. 행운의 숫자: 14, 28
酉	45년생 의심스런 인연을 만나니 생각하며 행하라. 57년생 의외의 이성을 만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69년생 불연이면 친지로부터 파벌임을 당하니 이해하며 지내라. 81년생 부부의 정이 소폭소폭 살아난다. 행운의 숫자: 24, 44
戌	46년생 생활의 무료함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변화를 가져라. 58년생 재물과 처 사이에 갈등이 생기니 중정의 마음을 가져라. 70년생 불만과 불평은 본인의 잘못이다. 82년생 외사람으로 인해 불연이 있다. 행운의 숫자: 16, 17
亥	47년생 순류에 항해하는 격이다. 59년생 새로운 일이 생길 수 있으나 신중하게 결정하라. 71년생 기력이 쇠하니 폐와 장을 살펴라. 83년생 식구들과 떨어져 지낼 수도 예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01, 43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 제17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계가족대회

#### 최고의 빅카드

4회전 2국 1보(1~10)

白 김광식 5단 (주)송림      黑 박광주 5단 (포스코)

단체전 최고의 빅카드인 포스코 박광주 5단과 (주)송림 김광식 5단의 대결이 드디어 성사되었다. 두 대국자는 모두 3연승을 기록중으로 이 대국의 승자는 개인전 4강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되고 패자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두 팀은 단체전에서든 입상권에 들어 있어 이 대국의 결과에 따라 순위가 달라지게 되어 여러 가지로 이 판의 결과에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광주 5단은 15회 대회 때 앞서의 정장효 5단과 더불어 막강화력을 과시하며 포스코가 단체전과 개인전을

힘써며 2관왕을 차지하는 데 결정적 공훈을 세운 동부권의 최강자다.

역시 김광식 5단은 왕년의 전남최강자전 우승자로 몇손가락 안에 꼽히는 이지역의 아마강자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직계대회에서는 이상하게도 성적에 좋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연전연승을 거두며 왕년의 기량을 심분 발휘하고 있어서 개인전의 강력한 우승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두대국자는 모두 전투형으로 포석부터가 세력을 지향하며 전투대형을 펼치고 있다.백 10이 전투개시를 알린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 바둑소식

#### 송재환 세계 어린이 국수 올라

21일 서울에서 열린 제8회 대한생명배 세계 어린이 국수전에서 송재환(안양 귀인초교 6년)군이 우승했다. 송군은 결승에서 변상일(서울 마장초교 5년)군과 맞붙어 불계승을 거뒀다. 송군에게는 국수상패 및 아마 5단 인증서와 바둑영재 장학금(1천만원)이 지급됐다. 각 부문 수상자들에게도 장학금 및 상장이 수여됐다.

이번 결승 무대에는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 등 8개국에서 301명의 어린이가 참가해 바둑 실력을 겨뤘다. 단일 바둑대회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이 대회 예선전에서는 1만2천명의 어린이들이 지역별로 자웅을 겨뤘다.

/오규철기자 kroh@kwangju.co.kr

### 굿모닝 잉글리쉬 <1208>

Thanks for bringing lunch over.  
점심 가져다주시는 것 고맙습니다.

A: Thanks for bringing lunch over. It really helps.  
B: It's the least we could do. I hope you get to feeling better soon.  
A: Me too. I can't take much more of this.  
B: Keep taking your medicine. Yell at us if you need anything else.

A: 점심 가져다주시는 것 고맙습니다. 정말 힘이 납니다.  
B: 별 것도 아니데요, 뭘, 곧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A: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폐를 더 이상 끼칠 수는 없잖아요.  
B: 꾸준히 약을 복용하십시오.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큰 소리로 저희를 불러주세요.

\* bring over : 가져다 주다  
\* feel better : 회복되다, 호전되다  
\* keep ~ing : 계속 ~하다  
\* 저희 집을 이렇게 잘 페인트 칠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 Thanks for painting our house so well.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 오하오우 니혼고 <1208>

ソウルの生活(せいかつ)はいかがですか?  
서울 생활은 어떠십니까?

A: 木村さん, ソウルの生活(せいかつ)はいかがですか.  
B: 物價(ぶつか)も東京より安(やす)く、人(ひと)も 親切(しんせつ)で住(す)みやすい所(ところ)です.  
A: たまにはうちへも遊(あそ)びに来(き)てください.

A: 키무라 씨, 서울 생활은 어떠십니까?  
B: 물가도 도쿄보다 싸고, 사람도 친절해서 살기 좋은 곳입니다.  
A: 가끔은 우리 집에도 놀러 오세요.

物價(ぶつか) : 물가  
住(す)む : 살다  
所(ところ) : 곳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 니하오 쑹구위 <185>

你会做什么运动?  
너 무슨 운동 할 줄 아니?

A: 你会做什么运动?  
Nǐ huì zuò shénme yǎndòng?  
너 무슨 운동 할 줄 아니?

B: 我会打网球。  
Wǒ huì dǎ wǎng qiú.  
저는 테니스를 칠 줄 알아요.

A: 你打得好好吗?  
Nǐ dǎ de hǎo ma?  
너 칠 때 좋지요?

B: 特别好。  
Tèbié hǎo.  
특별히 아주

运动 [yǎndòng] 운동, 운동하다  
会 [huì] 할 줄 알다  
特别 [tèbié] 특별히, 아주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  
☎ 383-1605

### 한자 이야기 <825>

遠交近攻(원교근공)  
멀 원, 사귀고, 가까이, 친, 공격

원교근공(遠交近攻)은 먼 나라는 친교(親交)를 맺고 가까운 나라는 공격(攻擊)한다는 외교정책(外交政策)이다.

중국 병법서에서도 나오는 원교근공책을 제일 먼저 제안한 사람은 위(魏)나라 출신으로 진(秦)의 소양왕(昭襄王)을 섬긴 범피(范雎)이다. 범피가 진나라에 갔을 때, 권력은 어린 소양왕의 어머니 선태후와 그의 동생 양후(楊后)가 좌지우지했다. 이에 범피는 소양왕에게 양후의 외교정책을 비판하였다. 양후가 가까이 있는 한(韓)나라와 위(魏)나라를 건너뛰어 멀리 제(齊)나라를 공격하려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설교하였다. 먼 제나라를 치기 위해서는 대군을 동원해야하지만, 그러면 본국이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비록 부족한 분을 한나라와 위나라 군대로 보충하려하지만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먼 나라와는 사귀고 이웃 나라를 치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정책이라면서, 가까운 초나라와 조나라를 우선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고, 중원의 한나라, 위나라와는 친교를 맺으면 제나라는 반드시 자신해서 우호(友好)를 요청해 올 것이라는 것이다. 제나라와의 제휴(提携)가 성립되면 그때 한나라와 위나라를 공격하여 천하를 차지한다는 계획이다.

<한예원(韓藝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